

홈 > 뉴스 > 전시 > Art&Design

실험적인 국내작가 7인, 국제갤러리에 모였다

남화연·윤향로·차재민 등 참여한 '기울어진 각운들'展

2013년 04월 23일 (화) 17:39:31

이혜원 기자 @dipsylee

국제갤러리가 젊은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국내 젊은 작가들의 그룹전 <기울어진 각운들(The Song of Slant Rhymes)>이 4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2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험적인 태도와 폭넓은 상상력을 가진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보여준다. 김현진 큐레이터의 기획 하에 남화연, 문영민, 윤향로, 이미연, 정은영, 차재민, 홍영인 작가가 참여해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현진 큐레이터는 국제갤러리 1층에 기울어진 벽을 세워 공간을 가로질렀다. 2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그는 “전통적인 화이트큐브(white cube, 하얀 벽)에서 실험적인 공간을 연출해 불안정한 간섭을 만들었다”며 “공간으로부터 전시 아이디어가 시작됐다. 이 공간에서 작가들이 저마다의 대화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 차재민, Fog and Smoke, 2013, HD비디오, 컬러, 사운드, 20분 (제공=국제갤러리)

차재민(27) 작가는 1층에 영상 작품 두 점을 설치했다. 20분 분량의 영상 ‘포그 앤 스모크(Fog and Smoke)’는 송도 신도시와 구도시의 풍경을 담은 작품. 작가는 바다 위에 안개가 낀 송도 신도시의 풍경과 신도시에 발생한 매연에 휩싸인 구도시의 모습을 보며 “풍경이 어떻게 계급화 되는지를 담고 싶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작품 ‘트리오, 트로트, 왈츠(Trio, Trot, Waltz)’에서는 골목에서 폐지를 줍

는 노인들의 모습을 연출해 도시의 이면을 보여준다.

윤향로(27) 작가는 만화, 영화 등 대중문화 요소를 도입한 작품 세 점을 출품했다. 2층에 설치된 첫 번째 작품 '가능한 반응(Possible Reaction)'에서는 무대 위의 숨 막히는 긴장감을 전시장 벽에 텍스트로 적었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만화나 영화에서 인물은 오려낸 채 상황이나 배경만 남은 그림 69점을 선보인다.

세 번째 작품은 최근 인터넷에서 '움직이는 짤방(움짤)'이라는 이름으로 떠도는 gif 파일을 영상으로 모은 것이다. 작가는 성적인 이미지가 담긴 이 파일들을 수집해 하나의 영상 작품으로 만들었다. 김현진 큐레이터는 "작가는 중산층 사회에 숨겨진 은밀한 폭력성과 권태, 성적 자극에 대한 탐닉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현진 큐레이터는 전시기획자 겸 비평가로 활동 중이다. 2008년 광주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 네덜란드 반아베 미술관의 게스트 큐레이터, 아트선재센터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일했다. 최근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플레이타임>展을 기획했고 저서는 「큐레이터 본색」(2012), 공동 저서는 「정서영-큰 것, 작은 것, 넓은 것의 속도」(2013)가 있다.



▲ 윤향로 작가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만화나 영화에서 인물은 오려낸 채 상황이나 배경만 남은 그림 69점을 전시한다 © 유니온프레스 이해원 기자